

개혁주의 세계관에서 본 스포츠

Critique on Aspects of Sports from the Reformed Worldview

이정기¹⁾

고신대 특수선교학부 교수

목 차

- I. 서 론 | 258
- II. 본 론 | 260
 - A. 개혁주의 세계관 | 260
 - B. 스포츠의 이원론적 관점 | 268
 - C. 개혁주의 세계관에서의 스포츠와 선교 | 282
- III. 결 론 | 291





요약

개혁주의 세계관에서 본 스포츠

체육학에서 스포츠란 ‘규칙에 따른 경쟁으로 즐거움과 행복을 특징으로 한 인간의 종합적인 신체 활동’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스포츠는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 그 활동의 영역과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스포츠는 참으로 중요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나님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전반적인 삶을 재평가하고 바르게 활용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학문과 교육의 모든 영역을 성경적 관점과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조망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서 있는 개혁 주의적 세계관은 무엇보다 <창조타락-구속>이라는 성경적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태권도를 포함한 스포츠를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

*Critique on Aspects of Sports
from the Reformed Worldview*

주요어

개혁주의 세계관, 스포츠, 창조, 타락, 구속.

Abstract

Critique on Aspects of Sports from the Reformed Worldview

In the Physical Education field, sports can be briefly defined as “comprehensive physical activities with a characteristic of pursuing happiness and enjoyment by competing according to rules.” However, as times goes on, we find a trend in which sport further expands its territory and function in the area of society, culture and politics. Therefore, we as Christians must approach sports with more significant perspective. It is due to our duty to reevaluate and use it in proper ways all of our life from God’s perspective.

To put it in detail, it means that we have to from the biblical and Christian world and life. In the Physical Education field, sports can be briefly defined as “comprehensive physical activities with a characteristic of pursuing happiness and enjoyment by competing according to rules.” However, as times goes on, we find a trend in which sport further expands its territory and function in the area of society, culture and politics. Therefore, we as Christians must approach sports with more significant perspective. It is due to our duty to reevaluate and use it in proper ways all of our life from God’s perspective. To put it in detail, it means that we have to view all areas of scholarship

and education from the biblical and Christian world and life perspectives. Especially, the Reformed worldview on which we stand centers on the biblical paradigm of “Creation-Fall-Redemption.” Studying sports including Taekwondo would contribute to scholarship so that we would know what to research and teach, and to which direction we need to move forward.

Keywords | Reformed Worldview, sports, Creation, Fall, Redemption.

I. 서 론

흔히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들의 이야기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군대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축구 이야기’이며, 마지막 하나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한다.²⁾ 그런데 요즘은 군대건 동네 운동장에서든지 간에 축구를 좋아하고 또 이것을 주제로 다양한 대화의 화두로 삼는 것을 즐기는 시대로 전환 된 듯하다.

얼마 전에 끝난 남아공 월드컵 축제는 65억이 넘는 인구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음과 동시에 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월드컵에 사용된 ‘자블라니’라는 이름을 가진 축구공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언어인 줄루어로 ‘축하한다.’라는 뜻을 지녔는데 이 작은 공 하나가 상대 골문 안으로 얼마나 자주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희비(喜悲)가 갈라지는 양상이 매번 반복되었다. 그야말로 온 세계를 축제로 연결시켰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승전가를 부르게도 만들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자국 팀의 패배에 대한 안타까움에 못 이겨 마치 초상집을 연상케 할 만큼이나 슬픔의 눈물을 쏟아내게도 했다. 그런데 희귀한 것은 경기를 지켜보는 이들마다 매년 반복되

1) 러시아 국립 체육 대학교에서 체육학사와 석사를 공부하고 러시아 국립 체육 스포츠 관광 대학교에서 체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고려신학대학원(M. Div)과 고신 대학교 선교목회 대학원(Th. M)을 졸업했다. 현재 고신대학교 특수 선교학부장으로, 스포츠 선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고신총회 파송 선교사로도 섬겼으며, 모스크바 태권도 선교 센터를 창립했고, 러시아 태권도 협회 기술 위원장과 태권도 국가 대표 수석 코치로서 대표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현재는 한국 대학 태권도 연맹 이사와 대한 건강 체육 진흥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 최정기, 『생명나무』 2010.6, p.6.

고, 또 매번 재현되는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즐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스포츠라는 영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체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역시 마냥 뜬 분위기로 함께 나아가는 것을 애써 자제해서라도 이젠 우리의 영적 신분에 맞게 왕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한번쯤은 접근해 봄야 할 소재거리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제기해 본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월드컵 7회 연속 본선 진출이라는 대단한 진기록을 세웠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본선 진출국으로서의 기쁨과 자부심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치열한 전쟁터에서 큰 대군을 무지르고 승전한 나라만큼이나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가하면 바로 연결해서 이 스포츠 축제의 결과에 의한 국가 신뢰도나 경제 성장에도 엄청난 파장을 미친다는 매스컴의 보도 사실은 실로 우리를 거듭 놀라게 한다. 이런 형상이라면 재차 강조하지만 스포츠를 그냥 하나의 축제 정도로만 가벼이 여기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스포츠를 통한 엄청난 파장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는 만큼, 우리는 보다 더 성경적이고도 통전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성이 일어나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즉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며, 특히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이제라도 좀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고 21세기 새 선교 시대를 준비하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주의 세계관에서 이 스포츠를 바라본다는 것이 이전엔 거의 접근하지 않았던 관점이라 결코 쉽지는 않다.

지난 90년대만 하더라도 진보적인 기독 학생들에게 ‘개혁주의 세계관’과 기독교는 거의 아무런 뜻도 없이 그냥 일상적인 단어처럼 여겼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과 혼동이 거듭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기준 없이 흔들어 놓는 만큼 이와 같은 무게 있는 스포츠 영역 또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석하게 재평가해 보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스포츠 역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선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부여하신 의미들이 변질되고 희석되지 않도록 회복 시켜야 할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II. 본 론

A. 개혁주의 세계관

1. 개혁주의에 대한 정의와 개념

1) 개혁주의에 대한 정의

우리는 개혁주의 세계관이란 말에 대해서 대단히 자주 듣고 또 기독인이라면 이 의미성이 얼마나 큰 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과연 개혁주의 세계관이 무엇이며, 또 우리 기독인들에게 왜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³⁾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을 갖고 지음을 받은 존재들인 만큼 개혁주의 세계관의 바른 개념을 정리하고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앙의 패턴을 형성해 줄 것이기에 많은 영적 열매들도 새롭게 꿈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혁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전적 의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학적,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성경에 대한 이해, 사회와 문화 전반에 대한 태도를 아우르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3) 마 6: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통적으로 The Reformed - ‘개혁주의’ 혹은 ‘개혁신앙’이라 불러온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를 우리의 생각과 삶의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정신이 바로 개혁주의이다. 넓은 의미에서 개혁주의란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운동과 그 신학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던 루터(Luther, 1483-1546)를 비롯하여 로마 천주교회에 대항하였던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주의란, 쥐빙글리(Zwingli, 1484-1531)와 칼빈(Calvin, 1509-1564)으로 이어지는 노선, 즉 루터파와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역사적으로 개혁주의는 종교개혁의 세력 가운데서도 루터파(Lutheran)와의 구별을 의미한다. 사실 루터파는 종교개혁의 선봉이긴 했지만 로마 가톨릭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은 소극적이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천주교회의 예전(Liturgy)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그러나 개혁파는 달랐다. 이들은 보다 철저하게 개혁을 단행했고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었다. 이렇게 쥐빙글리와 칼빈에 의해 시작된 개혁파교회는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화란), 프랑스, 스코틀랜드 등으로 확산되었는데 이런 개혁교회의 신학을 개혁주의라고 부른다. 다시 정의하자면 개혁주의는 16세기 종교개혁자인 쥐빙글리와 칼빈에 의해 시작된 개혁교회(Reformed Church)의 신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독일, 화란, 프랑스, 스코틀랜드 등으로 확산되었고 이후 17세기엔 미국에, 19세기 말 한국에 소개된 사상이다.⁴⁾

즉 개혁주의에 대한 역사적 고찰 없이는 깊은 이해가 따를 수 없기에 종교 개혁자들의 활동과 저들의 강조함을 깊이 들을 필요가 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묵은 틀 즉 형식과 예전(Liturgy)을 과감히 개혁하고, 바른 성경적인 삶을 요구하고 나섰을 만큼 보다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섬기려는 노력이 바로 개혁주의의 기본

4) 이상규, 『개혁주의란 무엇인가』(부산: 고신대학교 출판부, 2007), p.11-17.

정신이다.

2) 개혁주의(The Reformed) 이름의 의미

보통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가리킬 때 우리말은 ‘주의’라는 어미를 덧붙인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배금주의, 성장주의 등이다. 그것은 영어로 ‘ism’이다. 그런데 우리의 개혁주의에는 ‘ism’이 붙지 않는다. 편의상 한글 번역은 개혁주의라고 표기했지만 실상 개혁주의를 뜻하는 영어(Reformed), 독일어(Reformiert), 화란어(Gerefomeerd)에는 ‘주의’라는 말이 없다. 단순히 ‘개혁된’이라는 형용사만 있을 뿐이다. 이것은 우리의 개혁주의가 원론적으로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아님을 뜻한다. 사실 ‘주의’라는 것은 어떤 사상의 포괄적 체계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알기 원하는 개혁주의는 단순한 주장과 주의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믿음’과 ‘고백’ 위에서 ‘삶’의 변화에까지 이르는 생명력 있는 그 무엇이다.

역사적으로 개혁신앙(Reformed)은 ‘개혁된’이라는 말이 풍기는 과거적 느낌에서 알 수 있듯이 16세기 종교개혁을 배경에 둔 용어이다. 로마 천주교회의 타락과 성경으로부터의 이탈을 비판하며 그것을 개혁한 세력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개혁신앙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이었다. 따라서 개혁과 교회가 로마교회로부터 분리되었다거나 로마교회가 큰 교회고 개혁신앙을 가진 교회는 작은 교회라는 말은 맞지 않다. 오히려 어그러진 교회의 모습을 성경적으로 회복한 것이 종교개혁이며 개혁신앙이다. 그런데 이 Reformed는 16세기에 개혁되었으니 더 이상 개혁이 필요 없는 완전한 신앙이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수동형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야한다’는 현재 진행적이며, 미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번 개혁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개혁신앙, the Reformed는 16세기 종교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이 지금도 말씀에 비추어서 ‘개혁되어야’(reformed)할 것을 말하고 있다.⁵⁾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개혁되어져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신앙(Reformed)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이다. 흔히 우리는 세대가 바라고 세속의 강점들이 있다면 우리도 모르게 자연히 흡수해서 그것이 마치 성경인양 따를 때가 적잖다. 그러나 개혁주의라는 말의 의미 그래도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개혁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뜻이 이곳에 담겨있다.

3) 개혁주의의 바른 개념

개혁주의 세계관은 또 다른 용어인 기독교 세계관(Christian Worldview)⁶⁾란 말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이 기독교 세계관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학자이며 교육자인 제임스 오르(James Orr, 1844-1913)이다.⁶⁾ 그 후 이 용어를 사용해서 새로운 신학운동을 일구어 낸 사람은 네덜란드 화란의 르네상스적 인물(그는 목사, 신학자, 신문편집인, 교회개혁가, 대학설립자, 수상이었다)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이다. 이렇듯 기독교 세계관 이론은 유럽의 개혁교회(Reformed Church) 전통에서 형성되었는데, 이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일종의 ‘세계관적 철학’으로 이해하는 사고방식은 이미 개혁신학의 창시자인 칼빈(Jean Calvin, 1509-1564)에게 엿보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은 쓰고 있지 않지만, 1560년의 『기독교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불어판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비록 성경은 아무 것도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교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아직 성경을

5) 오스터헤이븐 지음, 『개혁주의 전통과 정신』 최덕성 역(서울: 본문과 현장사이, 1998), p.255-262.

6) David K. Naugle, 『Worldview』 (Grand Rapids/Cambridge: Eerdmans, 2002), p.5.

이해하는데 충분한 경험이 없는 사람을 안내하고 방향을 제시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 전부를 평범한 사람들이 발견하도록 안내하고 돋는 일은 성경 자체를 통해서 보다 기독교 철학(Christian philosophy)에 포함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잘 이루어질 수 있다”⁷⁾

일반적으로 개혁주의라 할 때는 ‘칼빈주의’를 말한다. 그리고 정치형태로는 ‘장로주의’를 표방하고, 정신에 있어서는 대개 ‘하나님의 절대 주권사상’이고,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는 것으로 그 특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것을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대신)에서는, “우리는 성경을 교회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제신조 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선언하면서, “우리는 교리적 면에서 역사적 개혁주의요, 교회사적 면에서 전통적 정통주의이며, 보수주의”고, 교회정치에는 장로주의 체제가 성서적 교회의 고유한 정체(正體)라고 믿는다.”고 나타내고 있다.⁸⁾

개혁주의 세계관이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Knudson은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적인 진리들을 숙고함으로 얻은 깊은 진리들을 체계화 한 것”이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기독교 세계관은 단순히 성경 내용을 체계화 한 것이 아니라 체계화된 진리에 대한 성령의 조명을 필요로 한다. 개혁주의 세계관은 전적으로 성경에 근거하고 있으며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⁹⁾

날마다 자신을 개혁하고 개혁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성경적인 기초위에 세워진 정신이다.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자신을 날마다 변혁하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7)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 T. McNeil,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20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p.6.

8)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1992), p.17-19.

9) 양성훈, 『기독교 세계관의 이해와 적용』(서울: 도서출판 CUP, 1990), p.34.

기쁨과 소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2. 세계관의 이해와 적용

흔히 세계관이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물이나 세계에 대한 인식과 판단의 기본 틀을 말한다.

80년대에 한국 기독교 내에서는 교회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확대된 운동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운동은 성경적 원리와 복음적 신앙에 근거하여 세계를 바라보고 해석하며 또 그것에 기초하여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자는 운동으로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의 신앙과 생활의 분리를 타파하고 양자 간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들이 일어났다¹⁰⁾.

사실 ‘세계관(世界觀)’이란 용어는 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철학적 개념으로 그것에 대한 깊은 학문적 논의가 없이는 개념의 바른 사용이 어렵다.

‘세계관(世界觀)’은 ‘인생관(人生觀)’, ‘신관(神觀)’과 같은 형태로 써어졌는데 그 용어의 문자적 의미는 ‘세계를 보는 시각’, ‘세계를 보는 관점’이란 뜻이다. 영어에서는 ‘view of world’라고 쓰기도 하고 독일어식으로 쓴다고 ‘worldview’라고 붙여 쓰기도 한다. 그러나 이 세계관이란 용어는 사실 근원적으로 독일어의 ‘weltanschauung(세계관)’이란 개념에서 온 것이다. ‘weltanschauung’이란 개념은 독일의 근세 철학과 낭만주의 문학의 시대에 생겨난 표현으로 만유의 구조와 목적,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한 총체적 견해라는 뜻이다.¹¹⁾ 소위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에 어떤 견해와 관점에서 보고

10) 전광식,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쁨』(서울: 도서출판 CUP, 1998), p.11.

11) 위의 책 p.12.

판단하는가에 대한 접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오랜 자신만이 익숙한 철학적인 관점이나 사변적인 사고에서부터 출발한 접근이라면 결코 올바른 관계성이나 수학을 기대하기로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편협한 범주에서 오랜 갈등과 충돌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혼란 논리나 체계 속에서 이미 구체화되어 있는 사상 역시 좋은 세계관을 도출해 내는 것 역시 결코 쉽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한쪽으로 기우려진 균형점을 잊어버린 관점이나 추상적인 방법이 아닌 그야말로 잘 다듬어진 세계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세계관이 철학과도 동일선상에서 이해하거나 다른 비판을 제시한다는 것도 배제해야 한다.

전광식 교수는 그의 책에서 세계관과 철학의 관계를 나름 데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첫째, 세계관이나 철학은 공히 하나의 전체로서 세계를 다루는데 단순히 자연 그 자체로서 자연 과학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본질과 의미, 가치의 목적, 흐름과 방향의 측면에서 다룬다. 둘째, 세계관이 견해의 소박하고도 전 이론적인 구상이요 표현이라면 철학은 사변적 체계화 내지 이론화된 사상의 덩어리이다. 셋째, 철학 안에 세계관적 요소가 필수 불가결하게 들어 있듯이 세계관 속에서도 소박한 형태의 철학적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세계관은 철학보다 광의적이라 할 수 있지만, 세계관이 철학으로 발전한 것으로 할 수 있다.¹²⁾

흔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계관에 따라서 삶을 실천하며 형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겠다는 기본적인 구도이기 때문이다. 세계관이 실천성을 이루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공허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끝나고 만다.

12) 위의 책 p.22.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계관을 바르게 세우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함과 동시에 바른 세계관을 확립했다면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삶이 연결되어 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관을 삶과 현상 속에서 방향과 지침서 역할을 해 주는 동력임을 잘 이해해야 하며, 그 만큼에 강조점을 둘 만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결국 세계관은 세계를 삶의 현장으로 이해하고 그 구조와 의미, 그리고 가치의 측면으로 조명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세계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세계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세계는 무엇을 위해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등을 논의 하는 것이다. 세계관은 삶과 세계의 궁극적 의미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¹³⁾ 즉 세계관은 개별 사물의 연구로부터 귀납적 결론은 얻으려는 태도나 합리적 고찰과 입증을 중요시 하는 연역적 방법이 아니라 인식의 기본 틀 자체이기 때문에 합리나 논리보다 체험 또는 직관과 관조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사상, 인생관, 우주관, 철학, 신념이나 신앙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세계관의 차이를 의미함을 종종 발견한다.¹⁴⁾

결국 세계관은 한 개인의 인생관(*Lebensanschauung*)과 함께 가는 만큼 강한 직결 성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한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바른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은 전 인생을 살아가는 시각과 관점 또한 불가항력적인 관계성을 띠는 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올바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세계관에 기초하여 풍성한 미래를 설계해 나간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생의 목적에 부합된 바른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즉 목표 설정이 형성되는 만큼 사물과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방향성을

13) 위의 책 p.32.

14) 양성훈, 『기독교 세계관의 이해와 적용』, p.19.

갖고 접근하게 되는 강점이 형성된다. 균형 잡힌 인생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그 자신의 생동감 있는 삶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세계관(Christian world-view)이란 그리스도인이 가진 세계관(Christian's world-view)을 뜻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이해한 내용들로 그 둘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B. 스포츠의 이원론적 관점

1. 스포츠 열풍

과거 20세기의 스포츠는 인류의 대 잔치였고, 주요한 문화였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위시하여 각종 국제경기의 스포츠 ‘명장면’은 인류의 흥분을 자아내고, 기쁨과 환희의 세계로 인도하였다. 이제 스포츠는 생활 속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고, 뉴스 타임의 주요한 제공거리이며,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방송과 언론매체의 주요한 기사로서 인류의 핵심문화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그야말로 스포츠에 영혼을 맡길 만큼 스포츠를 사랑하는 스포츠 광이 있는가 하면 스포츠를 주업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기업과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이리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다. 그야말로 신체의 움직임을 통한 스포츠는 수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면서 희열과 환희를 인류에게 안겨주는 강한 영향력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가 열렸던 한반도는 온통 벌건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국 축구를 상징하는 붉은 색깔이 경기장 스타디움을 온통 혁명의 깃발처럼 뒤덮고 있었다. 지금도 “대~한민국 두동~등 등등”하며 외치던 응원소리가 마치 힘차게 떨어지는 폭포소리를 연상할 만큼 두 구에 쟁쟁하게 들리는 듯 할 정도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처럼 한민족이 온 마음으로 하나 되어 단결된 적이 있었던가 싶다. 바로 이것이 스포츠만이 가진 독특한 형상이자 이 시대 세상 문화와의 새로운 소통의 자리이며 아이콘이다.

지난 2006년 독일 월드컵 축구 경기 때 역시 분위기 또한 심상치 않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는가에 대해서 국제 축구 연맹(FIFA)의 TV 중계권 대행사인 ‘인프론트’에서 밝힌 통계의 의하면 회원국 207개국 중 206개국에서 월드컵 경기를 중계방송을 하였으며 월드컵 기간 연인원 200억 명이 축구 경기를 시청하였다고 한다. 이는 세계 인구의 4.6배에 해당하는 숫자이다.¹⁵⁾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 노록수 선교사는 남아프리카 월드컵 예선전에서 스포츠를 통한 현장에 놀라운 기적들과 열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¹⁶⁾ 하고 있다. 남아공이 경기가 있는 날은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경기장에 나가 흑인 대통령이 수많은 백인 응원단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고 백인 선수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다. 그 때 대통령은 “대통령을 비롯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그대들을 응원하고 있으니 꼭 승리하라.”고 힘을 북돋아 주었다. 이를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던 남아공의 700만 백인 시청자들은 경계심을 풀고 마음의 장벽을 허물기 시작했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3,500만의 흑인들도 자기들의 지도자를 따라 어색하지만 조금씩 백인들에게 다가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마침내 그에 대한 보답이라도 하듯이 세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고

15) 임수택, 『생명나무』 2010.6 , p26.

16) 노록수, 『생명나무』 2010.6 , p22.

남아공이 결승까지 치고 올라가 사투 끝에 아프리카 월드컵의 예선전에서 우승 트로피를 치켜들었을 때 3,500만의 흑인도, 700만의 백인도 하나가 되어 춤을 추었고 거리거리마다 경적 소리와 기쁨의 환호 소리에 온 나라가 떠나갈 듯하였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것은 결승전 시작을 앞두고 그 긴장된 순간에 남아공의 애국가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을 때 흑인도 백인도 모두 일어나 비장한 표정으로 기도하듯, 찬양하듯 그들은 하나가 되어 하늘의 하나님 앞에 노래하였다. 흑인, 백인, 혼혈인, 인도인, 동양인 등 다인종들이 섞여 사는 무지개 국가인 이 남아공의 애국가는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

스포츠는 이렇듯 대중을 하나로 묶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효력을 강하게 발휘하는 것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증명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전 세계는 스포츠에 열광할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포츠 열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시대임에 틀림없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 쌓인 스트레스조차도 이 스포츠를 통해서 해소하고 있고, 또 자주 그렇게 시도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스포츠의 승리는 밤에 잠자는 것, 일하는 것까지도 포기해도 결코 지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새로운 체내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가 하면, 온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일시에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가는 폭발적인 힘도 있다.

비단 축구 종목뿐만 아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주민들은 지난 1980년과 1984년 슈퍼볼 빅 경기 이후 심장마비 발생률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 거리가 있었다. 자기 응원 팀이 경기에서 졌을 때를 기해서 그 주민들이 일주일 사이에 심장마비 발생률이 평소보다 6배로 뛰어 올랐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2006년 독일 월드컵 기간 중에 독일인들의 심장마비 발생률은 십만 명당 1명에서 월드컵 때 3명으로 세 배가 되었는가 하면 특히 제 7경기가 있던 날 심장마비 발생률이 높았던 뉴스의 보도도 이야기도 있다. 그만큼 이 스포츠를 생명과도 맞바꿀 정도로 큰 무게를 둔다는 것은 너무나 흥미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에서도 경기 시청 중에 돌연사가 7건이나 일어났었다. 그야말로 자국 팀을 응원하는 이들마다 경기를 손에 땀을 쥐고 관람하거나 시청하는 긴장 상태는 심장의 움직임이 빠르고 세게 뛰게 하므로 산소도 그만큼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데 그것이 늦을 정도로 스포츠 열기에 압도되어 쓰러지는 사태들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처럼 스포츠 열풍은 마치 강한 허리케인과도 같은 폭발력을 연상케 할 만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담보할 정도로 스포츠에 몰입하고 있음을 목도할 수 있다.

다양한 종목들이 경기를 갖는 올림픽 때도 동일한 양상은 결코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올림픽 메달 하나에 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비(喜悲)가 갈라지는가 하면 온 나라가 축제로 가든지 아니면 장례식을 연상케 할 만큼 승패에 대해서 큰 무게와 의미를 던지고 있다.

점점 더 갈수록 이 땅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한 부분에 몰입하게 된다.

이젠 세계 어디를 가나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스포츠를 삶에 한 부분으로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고무적인 현상이라면 이 스포츠를 통해 피부색과 언어, 문화, 국경을 넘어서 자연스럽게 친구로 손에 손잡고 함께 살아가고 농구는 아름다운 추억들을 곳곳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이 스포츠의 방향과 물줄기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함과 동시에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02년도 월드컵 때에 전 대한민국을 붉게 물들였던 그 강한 열풍은 이 스포츠가 아니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현장 들이었음에 우리는 믿음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함을 인지하게 된다.

2. 스포츠의 긍정적 관점

이 시대는 흔히 스포츠가 없이는 사는 것조차도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특이한 분위기로 팽배해져 있다. 그 만큼 스포츠를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과 행복을 많이 획득할 수 있는 만큼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익 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해아려 볼 필요가 있다.

개신교는 오래 전부터 스포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조직적 놀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음화 방법론적 차원에서 미약하지만 연구하며 활용해 왔다. 스포츠가 몸과 마음을 함께 건강하게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고, 선교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의 긍정적인 측면들은 참으로 무한하고도 다양하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본다.

1) 신체적인 유익

현대 사회로 오면서 사회가 산업화, 고도화, 자동화되었으며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해 생활이 편리해지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나, 그에 대한 역기능도 많이 생겨났다. 그 중에서도 환경오염 문제와 체력 저하는 심각한 수준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체력이 저하되면 건강을 위협받게 되고 비만 등으로 인한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등의 성인병에 걸릴 위험이 더 커지게 된다. 성인병뿐만 아니라 일반 질병들에 대해서도 그만큼 나약해 질 수밖에 없다. 예전에 비해 걸 체구는 많이 커졌지만 오히려 기본 체력은 떨어졌다는 통계¹⁷⁾를 보아도 이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17) <http://my.netian.com/~sinrap/news/c-6.htm>

대처 방안으로는 운동, 즉 스포츠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튼튼한 몸을 위해서는 스포츠를 통한 자신의 단련이 가장 효과적이다. 스포츠 중에서도 조깅, 수영, 사이클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 이외에 다른 구기 종목들도 기본적으로 많이 뛰는 유산소 운동인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¹⁸⁾.

요즘은 못 먹어서 병에 시달리고 고생하는 사람들보다도 도리어 너무 과하게 먹고 또 그것을 소화시키고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다.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도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교훈이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방법과 형태를 잘 대변해 주는 듯하다.

현대 직장인들은 집에서 자동차로 출근하고 사무실에 가서 계속 앉아 있다가 퇴근하면 또 집에 자동차를 타고 오고, 그나마 충계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므로 신체가 퇴화할 수밖에 없다. 움직임이 없고 최소한의 필요한 체력만 가지게 되므로 갑자기 어떤 몸의 부하가 걸리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몸과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되고 재조정되므로 순환계통이나 호흡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히 심장마비 등의 끔찍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다. 이를 막고 항상성을 얻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스포츠가 필수적 이므로 여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요즘은 특히 여자들의 경우 날씬한 몸매를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포츠가 병행되지 않는 다이어트는 매우 위험하다. 단순히 굶기만 하는 것은 체력 저하뿐 아니라 필수 영양소도 결핍되므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지방을 연소하는 곳은 근육뿐 이므로 유산소 운동과 근육운동이 필수적인데 이를 무시하면 체중은 줄일 수 있지만 체지방은 오히려 늘어난다. 일반적인 여성의 경우에는 20-25% 정도인데, 실제로 키 170cm에 50kg인 날씬한 여성의 체 지방율은 40%인

18) <http://myhome.netsgo.com/sontaekyu/2>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는 극히 비정상적이며 위험한 것이다. 이를 바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의 다이어트는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절염, 통풍, 자궁암, 유방암 등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질병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¹⁹⁾. 이렇게 스포츠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한 신체와 아름다움을 주며 질병에서부터도 보호해 준다.

옛날에는 너무나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것이 생존과 직결되었기에 들판을 뛰고 달리면서 적절한 운동량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너무나 주변에 이미 널려 있을 만큼 넉넉하고도 편리한 나머지 손가락 하나로 혹은 전화 한 통화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이다. 이와 같은 때에 스포츠는 모든 이들에게 우선적인 육체의 건강과 삶에 실제적인 유익함을 던져주는 엑기스임에 틀림없다. 이에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건강하게 단련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정신적인 유익

운동은 육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가치와 만족감도 한없이 상승 시켜 주는 매력이 있다. 소위 정신적인 건강을 중대 시켜 주는 놀라운 힘이 감추어져 있다.

스포츠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선물인 육신을 통해서 정신적인 회복을 공급해주는 또 하나의 매개체가 된다. 하나님의 목적과 그의 관점에서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행복을 갖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²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감정을 소요한 인격체들인 만큼 이 시대의 수많은 경쟁 사회 속에서 몰려오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19) 백세현, “제 15장 비만증의 치료”, 『인간과 의학 -고려의학』, p.174.

20) 빌 4: 4, 살전 5: 16-18.

심히 지치고 힘들어 할 때가 많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몰아닥친 경제 한파와 불황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을 생존 경쟁 사회 속에 밀어 넣고는 늘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가하면 심심찮게 자살하는 이들도 목격할 수 있고, 또 갈수록 그 수는 더욱 더 늘어나는 암울한 시대 속에 놓여있다. 근데 이들 속에는 기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놀랄만한 뉴스거리도 되지 못할 정도다.

스포츠는 이런 많은 힘든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이 되어 준다. 결국 운동을 통해서 정신적인 만족과 기쁨을 부여해 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삶에 영양소가 되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사교성을 중대하며, 품위를 향상시키고, 덕성을 함양시켜 주는 유익함도 있다.

흔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경우 과괴본능과 공격성 등의 본능을 이 스포츠를 통해서 마음껏 분출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감정을 순화시켜 준다. 직장인들 역시도 갖은 업무로 인해서 쌓인 스트레스를 이 스포츠를 통해 날려 버릴 수 있으며 재충전의 기회도 마련해준다. 또 자신에게 맞는 스포츠를 즐기다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미있고 흥미를 느낀다. 이러한 기쁨도 바로 이 스포츠를 통해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스포츠를 통해 정신적인 건강함을 넘어서 개인한 정신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음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소심한 성격을 대범하게 바꿔 줄 수 있으며 순간순간의 스포츠 활동을 통해 과감한 결단력을 심어준다. 예컨대 축구에서 패스할 것인가, 슈팅을 할 것인가, 과감한 드리블을 할 것인가 등에서 판단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이에 따른 결단력도 얻어진다. 자기가 열심히 한다면 직업의 귀천을 떠나 그 스포츠에서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으므로 자신감도 얻을 수 있다. 풀빵 장사나 실업자라 하더라도 축구를 잘한다면 조기 축구회에 나가 의사, 변호사 등 흔히 엘리트 계층을 지휘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 만족감과 함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런 경우도 포함하여 리더십을 기를 수 있다. 자신이 주장이 되거나 감독이 되어 팀을 이끌면서 리더십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신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다. 이렇게 정신적인 건강에서도 스포츠의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²¹⁾

허약한 육체는 결국 정신력까지 약하게 만들어 버리곤 한다. 그야말로 강인한 육체는 강인한 정신력을 만들어 놓는 만큼 긴밀하게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함을 던져 준다. 바로 스포츠가 가진 매력이 우리 인간의 정서에 깊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만큼 다양한 우리의 삶에 스포츠가 함께 가는 만큼 부모와 자식이, 그리고 부부가 함께 스포츠를 즐긴다면 역시 정신적인 엔도르핀의 확장과 더불어 깊은 교제와 관계성을 강화시킬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한민족의 강한 결집

스포츠는 한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한 국가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한다. 즉 나라에 소속된 국민들의 다양한 사고와 집단의 색깔들을 하나로 모우는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과 월드컵이 그야말로 온 국민을 하나로 결집케 만드는 큰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스포츠의 보이지 않는 힘이 조국을 건국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36년 여름에 한 무명 선수였던 손기정이 영국의 하퍼 선수를 제치고 2시간 29분 12초라는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하자 광화문은 함성으로 떠나갈 듯했다. 당일 아침 각 신문사는 너도나도 호외를 발행했고, 신문 지면은 손 선수와 동메달을 딴 남승용 선수 사진으로 도배 했었다. 기업들도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21) <http://ref.daum.net/item/11791284>

‘손기정 신드롬’을 광고 등 사업의 토대를 형성하는 방편으로 적극 활용했다. 그리고 수십 년 후인 어느 날 4강 축구 신화를 쓴 2002 한일 월드컵 때도 광화문과 인근 서울 광장은 축구 대표 팀을 응원하는 붉은 악마들로 메웠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신문들은 역시 앞 다퉈 이 월드컵 기사를 쏟아냈고, 기업들도 온통 월드컵 응원 광고에 매달렸다. 이는 지금 열리고 있는 남아공 월드컵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이전에 일제 식민지 때부터 우리 민족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었다. 한 때 ‘조선의 사나이거든 뜻뿔을 차라.’는 말이 스포츠와 민족, 스포츠와 국가를 동일시 될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1890년대 만들어지기 시작한 한국의 스포츠는 1936년 손기정의 베를린 마라톤 우승과 함께 완성되었다. 한 때 일본제국 통치하의 조선인들은 문화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일본인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을 주입받으며 살아야 했다. 근거 없는 차별, 비이성적인 멸시가 있었고 그 멸시의 배후에는 인종주의 이데올로기가 있었다. 그들은 무소불위의 폭력 앞에서 쉽게 머리를 조아리고 굽실댈 수밖에 없었다. 또한 폭력은 일상인의 몸에 가해지는, 식민지 파시즘의 일상적 구현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멸시 속에서 ‘민족 신드롬’이 일어났다. 그것의 분출은 바로 1926년 순종 인산일과 1936년 손기정 선수의 마라톤 우승이었고 이를 계기로 상업 미디어, 자본의 힘이 결합하면서 스포츠 민족주의가 움트게 됐다고 볼 수 있다.²²⁾

이 만큼 스포츠를 통해서 나라가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로 결집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으키는 매개체가 되었는데 그 중심에 스포츠가 버티고 있다.

이제 이 스포츠는 한 나라의 주체인 만큼 국민들의 정서와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한다. 흔히 올림픽이나

22) 천정환. 『조선의 사나이거든 뜻뿔을 차라』(서울: 푸른 역사, 2010) 참조.

세계 스포츠 행사가 개최된 후에는 그 열기에 매료된 나머지 범죄자들의 마음까지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들어 버린다. 그 결과 올림픽과 월드컵 시즌에는 사회 범죄율이 절반 이상으로 낮아진다는 것이 경찰들의 증언들이다.

이제 이 스포츠는 스포츠가 아니라 다양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 할 만큼이나 접착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대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유도, 수영, 역도, 배드민턴, 탁구, 사격, 펜싱, 핸드볼 등이 한국인들을 하나로 묶었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날 이 스포츠 문화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더 열광적으로 몰입해 가고 있다. 이런 스포츠의 열광적인 상황들이 민족을 하나로 엮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4) 스포츠로 인한 경제 성장

이제 스포츠의 힘이 경제적인 지표까지도 흔들 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다. 다양한 스포츠 축제에서 각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도출한 나라들은 은근히 어깨에 힘을 주면서까지 과시하는 시대다. 바로 스포츠 외교가 나라의 경제와 국가 신뢰도까지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들 가운데서 올림픽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만 낸다면 그 나라의 입지가 단숨에 상승하는 것은 너무나 매스컴들의 많은 보고들로 인해 충분히 인지하고도 남음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스포츠로 명실공이 국가 간의 막힌 담들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 경제 발전의 막힌 숨통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라면 지난 70년대 냉전 시대에 깊은 침묵 가운데 서로에게 꽤 위협적이었던 미국과 중국은 소위 평통외교를 통해 국가 관계의 문호를 개방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했다. 이는 두 양국이 함께 소통하며 서로의 경제를 걱정하며 세우고

성장하는 쪽으로 발전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다른 국가들까지도 스포츠로 인해서 스스럼없이 접근토록 하여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돌파구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랫동안 별다른 성과가 없었지만 결정적으로 축구, 탁구 등 스포츠의 종목에서 시작된 남북 단일팀 구성은 서로 간의 벽을 허무는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결국 금강산 관광 사업과 다양한 경제 활동들이 시작되는 단초가 된 셈이다. 때문에 앞으로도 월드컵 남북한 공동개최나 올림픽 단일팀 구성 등 이질감을 허물고 화합하는 데에 스포츠를 적극 활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이 스포츠로 인해서 한국의 전통 문화와 관광 자원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대회 준비 및 운영 과정과 향후 잠재 관광 목적지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유, 무형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스포츠 마케팅을 잘 활용하는 국가들이 내일의 강인한 나라들을 세워가곤 한다. 때문에 모든 국가들마다 경제 성장과 연결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하는 지혜로움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스포츠의 부정적 관점

스포츠가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고 생활의 활력소를 주는 유익함이 있는一面엔 적잖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제고해 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

많은 사람들을 설레게 하고 때로는 마음을 용광로에 몰아넣을 만큼이나 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이 스포츠의 내면에 흐르는 다양한 도전들 역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첫 번째의 부정적인 관점은 이 스포츠가 우리의 문화 속에 쉽게 용해되어져서는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유해를 끼치는 일들이 예기치 않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특히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그 어느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많은 중요한 것들을 두고도 쉽게 우선순위를 무너뜨리는 대상으로 접근해 온다는 점이다. 특히 인생의 꽃인 청소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꿈과 비전을 설계하고 전진해야 할 시기임에도 이 스포츠에 깊이 빠져서 모든 것들을 자포자기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사이에 자신의 원래 삶의 목적과 계획에 대해 전혀 진지함을 견지하지 못하게 하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미 긍정적인 관점에서 제시한 대로 건강과 밝은 자아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수준을 넘어서 그야말로 맹목적이고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작품인 육체를 혹사 시킬 정도로 스포츠에 몰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많은 사회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소위 스포츠가 우리의 공동체에서 많은 경우 종교에 평등하게 대체될 수가 있을 정도로 강한 영적인 도전으로 접근하고 있음에 대해 우려할 정도다. 결코 과하지 않도록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운동선수의 우상화와 그들의 명성에 따른 신성화를 빼 놓을 수 없다. 수많은 청소년들은 스포츠 선수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스포츠 스타들을 영웅시함과 동시에 그야말로 우상화해서 숭배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스포츠 스타 선수들의 사진이나 마크가 새로운 신뢰와 믿음의 심벌로 인식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말씀과 은혜가 머물러야 할 자리에 스타플레이어들의 사진과 마크가 더 깊은 신뢰와 믿음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지는 우상화는 아주 오래 전부터 행하며 접근해 왔던 사탄의 전략이다.

아직도 영 분별력이 완전치 못한 청소년들의 시간과 돈, 그리고 짚음을 빼앗고, 무너뜨리는 우려를 거듭 낳고 있다. 결국 이런 인기를 등에 업은

운동선수들은 감히 일반인들이 평생 모아도 다 모을 수 없는 로열피의 계약으로 인해서 기업과 함께 국민들의 마음을 유린하는 상황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런 정제되지 못한 이 시대의 스포츠는 직접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과 또 그것을 관람 하는 사람들의 시간과 돈, 사고와 대화까지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상황 논리 속에서 비른 영적 지침서가 없다면 많은 영적 문제를 야산하게 될 것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세 번째의 문제점으로는 인간을 하나의 대회 성적만을 위한 기계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점이다. 소위 메달과 성적만이 개인이나 국가든지 간에 다양한 특권과 혜택을 누리게 되는 만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마치 하나의 기계처럼 격하되어 돌고 돌린다는 점이다.

지난 2008년 8월 8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 29회 중국 베이징 올림픽은 지구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세계 205개국에서 1만 5000여명의 선수단이 참여한 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예상한대로 중국은 미국을 가볍게 제치고 최대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를 위해 노력한 선수들도 그 만큼 땀 흘린 보람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올림픽이 시작되기 얼마 전 한 독일 TV 방송이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방영했다. 중국의 어느 특수 체육학교를 집중 취재했는데 어린 시절에 마음껏 놀며 밝고 명랑하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올림픽 금메달이라고 하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모든 것을 회생당하고 있었다.²³⁾ 어린 꼬마들이 그야말로 올림픽 금메달은 곧바로 부자라는 등식과 어른들의 교묘한 계산법 아래 어린 시절부터 매우 학대받고 혹사당하는 것들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올림픽 정신은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가 사명 선언문에서 밀하고 있는 것처럼 “우정, 결속 및 정당한 경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함으로 보다 평화롭고 발전된 세계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다.²⁴⁾

23) “카타콤 소식”(모퉁이돌 선교회) p.11.

24)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사명 선언문” 참조

올림픽의 금메달이 그것을 위해 꿈을 키우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간의 전부를 희생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니라 ‘우상’일 것이다.

시간, 에너지와 모든 자원은 하나님의 목적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좋아하는 스포츠 팀이나 선수들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스포츠에 희생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국 스포츠는 세상적인 스포츠와 관련된 가치는 성경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와 위배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죄악임을 기억해야 한다.

C. 개혁주의 세계관에서의 스포츠와 선교

1. 스포츠의 성경적 관점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주일 하루 동안만 영광 돌릴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항상 영광 돌리기를 바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안식일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 매일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원하신다.

마 25:13-30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또 하나의 예배에는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달란트와 선물과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모든 능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수준으로 개발시켜야 하고, 또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한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는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원을 쓸모 있게 경작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성경적 원리는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 계획 속에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에는 우리의 일뿐만 아니라 여가에서도 동원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들을 통합해야 한다.

스포츠란 육체적 활동으로 간단하게 정의되며 사회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화적으로 사회,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기독교에서도 스포츠는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삶의 전반적인 것에 접근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개혁 신앙적 기독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전에 우리는 성경에서 스포츠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본다.

구약에서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관련된 스포츠는 구체적으로 없다. 그 외 고대 사회에서도 여가 시간을 스포츠를 즐긴 역사 역시 찾아보기 쉽진 않다. 스포츠의 종목인 달리기, 활쏘기, 사격 등은 현재의 스포츠의 의미와는 달리 생명의 위협과 생존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무용과 예배기간의 신체적 활동은 현재 의미의 스포츠와는 관련이 멀다하겠다.

신약에서의, 특히 사울 서신에서는 기독교인의 삶에 많은 덕목으로 기록되고 있다.

고전 9: 24, 25절에서는 마라톤으로, 딤후 4: 7절에는 권투로, 고전 9: 25절에는 올림픽과 상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 있다. 우선순위, 우승, 보상, 인내와 실격의 법칙을 통한 자기극복과 훈련과 기도에 기여도와의 관련된 비유들이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경을 토대로 우리의 사역과 스포츠를 함께 연관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성과 도덕과 예술적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다.

홈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들을 유지하고 회복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청지기 의식을 가진 크리스챤의 책임의식에 있다²⁵⁾고 말했다.

25) Arthur F. Holmes, 『기독교 대학의 목적』 이승구 역(서울 : 엠마오, 1975), P.16.

이 제안은 통합적 인간의 개발을 위한 목적에서 본다면 세속과 성화사이에서 이분법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시해 주고 있다.

이것은 설교와 악기연주를 통한 연주뿐만 아니라 태권도 훈련에서도 이 모든 것이 종교적 활동이다. 음악이 그렇듯, 설교가 그렇듯 종교와 스포츠도 그 가치가 분리 될 수 없다. 그것들은 하나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을 배경으로 볼 때에 스포츠에 대한 더 많은 설명은 없지만 반드시 지도하고 바른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지침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개혁주의 세계관에서의 스포츠

일반적으로 체육학에서 스포츠란 ‘규칙에 따른 경쟁으로 즐거움과 행복을 특징으로 한 인간의 종합적인 신체 활동’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스포츠는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 그 활동의 영역과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을 이미 밝혔다.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스포츠는 참으로 중요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전반적인 삶을 재평가하고 바르게 활용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학문과 교육의 모든 영역을 성경적 관점과 개혁주의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조망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서 있는 개혁주의적 세계관은 무엇보다 <창조-타락-구속>이라는 성경적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태권도를 포함한 스포츠를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

먼저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 만물 그리고 만유의 모든 영역이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영역 가운데 하나인 스포츠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로 협동하는 것을 배움과 동시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종래에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죄악과 타락으로 인해 인간과 모든 영역이 타락했듯이 스포츠도 타락 하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스포츠에서도 선수들에게 대한 찬양과 우상화, 출세, 명예, 금전과 같은 인간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화의 방편이 되어 버렸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우승 욕심과 경쟁으로 인해 상대를 적대시하게 됨과 동시에 스포츠에 빠짐으로 과도한 시간허비와 육체문화 발전의 도구화로 황폐화되어 버렸다. 종종 독재권력 등에 의해 이데올로기화 상황에서 타락의 온상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스포츠를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영역에서 변화시켜야 하고 회복 시켜야 한다. 인간과 모든 영역이 그러하듯이 스포츠 영역도 구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스포츠 안에서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찾아 가게 되는 것이다. 즉 창조의 본래 목적에 따라 인간에게 건강을 가져다주고 좋은 훈련을 시키는 선한 것이 되고, 경기를 통하여 서로가 협력과 사랑을 배움과 동시에 섬김을 배우게 되어 질 것이다.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며, 이 스포츠를 도구로 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 인재들을 양육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개혁주의 세계관의 관점에서 스포츠를 회복시켜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서만 아니라 스포츠의 주인으로 드러내며, 스포츠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인재들을 양성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스포츠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렇게 할 때에 이 스포츠를 통해서 성경적으로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첫째로 스포츠는 고전 6:19절의 말씀대로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해 가는 중요한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스포츠는 선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재능과 은사들을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된다. 그래서 선수들로 하여금 자신의 육체적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다. 세 째로는 스포츠는 덤으로 많은 이들에게 건강하고도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특히 선교를 겸한 그 일자리는 매우 보람 있는 삶의 가치를 부여해 주는 지표를 만들어 주는 이점도 있다. 더 나아가 스포츠는 제자화 교육과 복음 전도의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즉 그냥 모이자면 어려울 청소년들에게 이 스포츠를 매개체로 초청한다면 기쁨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한다면 좋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자라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개혁주의 세계관의 관점에서 스포츠를 개발하며 또 인재들을 양성할 때 분명한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된다. 철저한 전문 기술 훈련, 개혁주의적 관점과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영적 훈련, 그리고 선교적 비전 함양 등을 통하여 스포츠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인재들을 양성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들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 시키게 된다.

이렇게 배출된 인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우수한 기독 선수들이 되어 경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태권도 도장 경영 등 스포츠를 통한 전문인 선교사들로 파송하며, 또 다양한 섬김과 봉사의 일들을 하게 된다. 결국 스포츠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성전으로서 옷 입은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게 한다.²⁶⁾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하시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해서 건강한 육신을 주셨고 젊음을 부여하셨다. 이런 중요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스포츠이다.

26) 고전6:19-20, 딤전4:8

흔히 생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 육체는 일주일에 적어도 4-5번씩은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적절하다. 한번 운동을 할 때는 최소 30분씩 활동을 함으로서 땀을 흘림과 동시에 우리의 근육과 건강에 밸런스를 잡아 주게 된다. 이런 건강한 육체를 통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데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림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올바른 규칙 속에서 잘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 무리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스포츠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k-1 과 같이 극적인 육체적 훈련과 위험함이 도사리는 운동이나 남에게 잘 보이려고 목숨을 걸고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모습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할 사안들이다. 이런 것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원 계획과 우리 몸이 창조된 본래 목적을 잘 짐짓하게 만드는 등기 부여를 던져주는 셈이다. 결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몸을 학대하거나 과도하게 내 던지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만큼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한 영성들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동력으로서 이 스포츠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살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 개혁주의 세계관에서의 스포츠 선교 전략(戰略)

인류 역사상 수십억에 달하는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스포츠 행사는 금세기 외에는 일찍이 없었다. 이처럼 스포츠는 이제 세계인의 언어이자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스포츠의 세계화 현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현재도 펴져가고 있다. 그렇다면 선교의 과제를 풀어야 하는 교회에 있어서 스포츠를 통한 선교의 전략적인 면에서 세계화가 된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새로운 언어를 만들지 않았다. 그는 당시 로마 제국에 널리 퍼진 헬라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신약 성서를 기록했으며, 복음 전파를 위해 새로운 도로를 닦지 않고 로마가 군사용으로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 스포츠 시대를 맞이한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선교의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즉 세계에 잘 알려진 스포츠라는 인류의 문화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던 시절은 고대 올림픽 경기(기원전 776년부터 정식적으로 시작됨)가 아주 인기를 끌던 시절이었다. 당시에 유명한 스포츠 경기 종목은 장단거리 육상 경기, 권투, 경마, 마차 경기 같은 종목이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육상이나 복싱 같은 스포츠 경기를 예를 들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그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또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를 비유로 삼아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심리적 거부감 없이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남아공 월드컵 축구 경기를 두고 적용해 볼 수 있다. 축구 하나만 두고 말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는 사도 바울 시대와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알고 있고, 축구를 좋아하고 있다. 아무튼 축구는 상업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색깔의 옷을 입고, 월드컵을 통한 세계화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지구 곳곳으로 널리 퍼져가고 있다.

현명한 어부는 어떤 고기가 어디에 서식하며, 무슨 먹이를 좋아하며, 언제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다. 이 시대의 물고기는 스포츠 특허 축구를 좋아한다. 이 축구 물고기는 얼마 전까지 남아공 해역에서 수십억 쪽을 지어 놀고 있었다. 지금까지 수천 년간 사용한 교회의 어획방법으로는 잘 잡히지 않는 금세기에 급속히 증가한 새로운 물고기의 출현이다. 이 신종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원리는 간단하다. 이 축구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와 그물을 사용하여 잡으면 어업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하였던 그 스포츠를 실제 선교 현장에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때라고 생각한다.²⁷⁾ 그야말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²⁸⁾로 부르셨다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너무나 부합되는 전략이 아닐까 싶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더 구체적인 개혁주의 세계관에 입각한 스포츠를 통한 선교 전략들이 요구된다.

첫째로 개혁주의적인 세계관을 신앙으로 무장한 기독인 스포츠 스타들을 많이 육성해야 한다. 그래서 저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 볼 수 있도록 전략적인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 2002년도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수많은 기독인 축구 스타들이 그라운드에서 무릎 끓고 기도하던 모습들을 보면서 보는 이들마다 던져진 영적인 파장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밀려오는 파도와도 같았다. 경기 후에는 기독인 스포츠 스타들의 뒤를 따라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고 또 등록했던 좋은 보고들이 이를 입증해 준다. 얼마 전에 김연아 선수가 천주교 미사 중에 세례를 받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방영된 직후에 갑자기 천주교에 대한 온 국민들의 정서가 너무나 온화해 진 것도 또 하나의 사례다. 이제 교회들이 이에 버금가는 기독교 스포츠 스타들을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로 양성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두 번째로 개혁주의 세계관을 가진 기독인 스포츠 지도자들을 많이 양성해야 한다. 한 기독인 지도자가 그 선수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때에 결국은 또 하나의 믿음의 열매 즉 깊은 제자들이 함께 일어서게 될 것이다. 한 때 LG 정유 배구단을 이끌었던 김철용 감독을 통해서 그 팀에 속한 모든 선수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경기를 마친 후에 함께 코드에서

27) 임수택, 『생명나무』2010.6, p27.

28) 마4: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선수들과 함께 둉글게 무릎을 끓고 기도하던 모습이 화면 속에 비춰질 때는 우리의 작은 가슴이 마구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이제 각 체육 종목들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계속적인 영적 부흥을 스포츠 현장에서 일으킬 수 있도록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한국 교회들이 이 스포츠 선교를 마음껏 활용하고 기꺼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세계 피스 컵 축구 대회’를 개최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유린하고 영적인 혼란을 가중시키는지 모른다. 스포츠를 통한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 속에서도 잘 활용한다면 아름다운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결코 우리의 관심과 전략 부재로 인해서 스포츠가 구석에 밀려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초신자들을 교회로 초청할 때에 스포츠 축제를 교두보로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존 성도끼리도 깊은 교제의 장으로 이 스포츠 축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기독교 스포츠 단체들이 함께 연합 작전을 펼쳐야 한다. 현재 국내에만 적잖게 산재되어 있는 스포츠 선교 단체들이 있다. 이런 스포츠 전문 선교단체들이 이제는 각자의 목소리만 높일 뿐만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새로운 전략들을 펼쳤으면 한다. 좋은 기술도 공유하고 서로의 정보도 교환함으로 연합할 때 더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사탄의 전략도 다양한 만큼 우리 모두도 함께 하여서 더 다양하고도 매력적인 기독교 행사들을 기획하고 복음이 이 땅에 편안하게 드러나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독 매체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서 스포츠 사역들을 확대시켜 나가길 제안한다. TV와 다양한 영상 매체를 통해서 기독인 스포츠 스타들의 활동과 영성들을 다양하게 조명해서 나아간다면 일반인들도 함께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서 복음을 위한 스포츠 선교를 향한 기초석을 놓은 축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IV. 결 론 - 스포츠의 성경적 관점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경적 접근(창조-타락-구속)으로 스포츠를 성경적 원리를 요약할 수 있다.

1.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의 활동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다.
2. 사단은 이런 육체적 활동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위에 둠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3. 구속사적으로 우리 삶에서 가장 최고의 목적은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 하는 것이다(고전 10:31, 골3:17).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스포츠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위 개념이어야 한다.
4.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선포하기 위한 기회와 도구로 스포츠를 봐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마 28:19, 벤전 3:15).
5. 이런 시각으로 모든 국가에 한국에 선교를 위해 특별한 도구로 주신 태권도를 이용해야만 한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기독교 대학인 고신대학교에 태권도의 새 개념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세계의 최고의 시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하며 이 사명을 최우선을 두어야한다. 이런 원리는 교회에서도 중요한 원리이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활동과 계획, 공동체의 존재 의의가 하나님의 왕국의 존재 의의가 되어야 한다. 성경의 가르침이 기준(standards)이요, 하나님 나라(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일이 그 방향(direction)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기준과 방향에 따라서 가장 성경에 철저한

세계관과 일관성 있는 세계관을 제시하는 일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개혁주의적 세계관에서의 스포츠 영역을 다시 한번 더 재조명해서 이 영역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르게 세울어야 한다.

참고문헌

- 이상규,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부산: 고신대학교 출판부, 2007
- .최정기, 『생명나무』 2010.
-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1992
- .스티븐 고크로저. 『신세대를 위한 선교 길라잡이』 김종호 역, 서울:IVP, 1998
- .세계체육인선교회. 『스포츠를 통한 세계 복음화』, 1995
- .양성훈, 『기독교 세계관의 이해와 적용』, 서울: 도서출판 CUP, 1990
- .전광식, 『학문의 금길을 걷는 기쁨』, 서울: 도서출판 CUP, 1998
- .천정환. 『조선의 사나이거든 뜻뿔을 차라』, 서울: 푸른 역사, 2010
- .오스터 헤이븐, 『개혁주의 전통과 정신』 최덕성 역, 서울: 본문과 현장사이,
1998
- .“카타콤 소식”, 모퉁이돌 선교회
- .Arthur F. Holmes. 『기독교 대학의 목적』 이승구 역, 서울 : 앰마오, 1975
-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사명 선언문” 참조
- .이종분, 국민일보 11월. 1일. 1994
- .이필곤. 『태권도』 제82호: 대한 태권도협회. 1992
- .이현모.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신다』, 빛과 소금 6월호. 1997
- .크리스챤 라이프 3월호 논문, 1992
- .김희삼. 『태권도를 통한 세계 선교의 실천방안연구』, 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 .박상영, 『미전도 족속을 향한 태권도 선교의 효과』, 1995
- .박성하. 『스포츠선교의 역사와 전망』, 1995
- .백세현, “제 15장 비만증의 치료”, 「인간과 의학-고려의학」
- .David K. Naugle, 『Worldview』 (Grand Rapids/Cambridge: Eerdmans, 2002)
-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 T. McNeil,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20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 . <http://my.netian.com/~sinrap/news/c-6.htm>
- . <http://myhome.netsgo.com/sontaekyu/2>
- . <http://ref.daum.net/item/11791284>